

# 한국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김상균\* , 조성호\*\*

## ◇ 목 차 ◇

- 
- I. 서 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및 논의
  - V.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ABSTRACT
- 

## I. 서 론

사람은 누구나 나름대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우리속담에 “열길 물 속을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사람의 마음을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는 뜻이다. 더구나 사람의 성격은 타고나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도 변화하고 발달할 뿐 아니라 자신이 처한 직업이나 환경에 따라서도 변화무쌍하다. 이처럼 알기 어려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고대철학자에서부터 현대심리학자까지 끊임 없이 추구되어왔다.

그 이유는 성격이 그 사람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알맞은 직업적 성이 조직의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자신의 기

---

\* 육군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업문화와 특성에 맞는 성격을 지닌 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적성에 맞는 분야에 배치하기 위해 성격검사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공무원은 채용시기에 심층면접을 통해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경찰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가의 치안질서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가에서는 경찰채용과정에서 심층면접과 성격검사가 필수적인 과정이고, 한국경찰의 경우에도 경찰관의 성격에 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심층면접을 채용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육군3사관학교 심리학과 교수

하지만 입직과정에서 올바른 인성을 지닌 경찰관을 채용한다하더라도 경찰조직에 역기능적인 부문화가 존재하고 신입경찰이 부문화(subculture)에 영향을 받아 바람직하지 못한 직업적 성격(working personality)을 형성한다면 경찰의 치안서비스를 생산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더구나 현대사회에서는 경찰의 치안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적절히 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경찰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의 부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직업적 성격특성도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순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부문화가 역기능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경찰관리자들은 직업적 성격특성을 경찰조직의 목표달성에 효과적인 방향으로의 변화와 발전을 모색하는 정책적 의지와 학문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경찰조직의 핵심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대한 연구성과는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실증적 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문헌검토작업과 현직경찰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증적 조사를 하였다.

## II. 이론적 배경

### 1. 직업적 성격의 정의

성격(personality)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성격연구의 대표적인 학자인 Allport(1937:25-50)는 성격을 “환경에 대한 개인의 독특한 적응을 결정하는 심리적 체계들의 개인내의 역동적 조직”으로 정의하였고, Guilford(1959:5)는 “한 개인의 특질을 나타내는 패턴”이라고 하였으며, 또 Maddi(1980:10)는 “사람들의 심리적 행동에서 있어서 공통성과 차이를 결정하는 특징 및 경향들의 안정된 집합”이라고 정의하였다.<sup>1)</sup>

최근에 Pervin은 성격을 “행동의 일관된 패턴을 설명하는 개인의 특성을 대표하는 것”

1) E. Jerry, Phares, Introduction to Personality, 홍숙기 역, 성격심리학, pp. 5-9에서 재인용.

이라고 하여 다른 학자들 보다 넓게 정의하고 있다.<sup>2)</sup>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종합하면, 성격(personality)이란 "개인이 환경에 따라 반응하는 특징적인 양식으로서 타인과 구별되게 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 감정 및 행동방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sup>3)</sup>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대한 정의도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대하여 Skolnick(1966)은 "한 개인이 자신의 직무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독특한 특성"으로 정의하였기도 하였다.<sup>4)</sup>

또 Westley(1970)는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적대감, 불신, 그리고 잠재적 폭력성"으로 특징 지었으며,<sup>5)</sup> Manning(1979)은 "집단적 단결과 상호의존적 특징"으로 정의한 바 있다.<sup>6)</sup> 이를 종합하여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정의하면 "경찰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한 개인의 특성으로서 다른 직업과 비교하여 독특하고 일관성 있는 사고와 감정, 그리고 행동의 특성을 나타내는 경찰 하위문화적 특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경찰의 직업적 성격형성

### 가. 직업적 성격의 형성원인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대한 대표적인 학자인 Manning(1989)은 최근에 경찰하위문화에 대한 25년 간의 연구결과를 검토하고 경찰의 직업적 성격의 형성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요약한 바 있다.<sup>7)</sup> ① 경찰관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직업적 문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② 경찰업무의 불확실성의 결과로서, 경찰관은 도움, 충고, 훈련, 업무 지식, 내외적인 위협으로부터의 방어, 일반시민으로부터의 고립, 위험성들 때문에 다른 동료경찰을 의존하게 된다.<sup>8)</sup> ③ 많은 경찰관들은 다른 경찰관과의 접촉을 통해서 사회화된다. ④ 경찰관들은 스스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민간인 친구의 동기(motives)에 대해서도 가끔 의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⑤ 일부경우에는 일종의 상호보호집단으로 발전하여 이를 통해서 일반시민과의 거리감과 고립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찰관의 가족들은 서로 알고 지낸다. ⑥ 경찰하위문화인 "형제애(brotherhood)"는 비공식적인 규칙과 규제, 방법으로 구성되며, 자신들만의 전통이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은 교육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 실제현장경찰활동과는 거리가 멀다고 하는 고참경찰의 말을 듣고 생활하는 초임시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2) L. A. Pervin,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1993), p. 3.

3) 김현택외, 심리학(서울:학지사, 1998), p. 127.

4) Justice Without Trial(New York, John Wiley, 1966), p. 25.

5) W. Westley, Violence and the Police(Cambridge, MA:MIT, 1970), pp. 45-47.

6) P. K. Manning, "The Social Control of Police Work", In Holdway, S. (ed), British Police(London : Edward Arnold, 1979), p. 52.

7) P. K. Manning, Occupational Culture(New York:Garland, 1989), p. 362.

8) P. K. Manning, ibid, p. 363.

보인다.<sup>9)</sup>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형성되는데는 그들 스스로 "소외집단(blue minority)"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한 몫을 한다.<sup>10)</sup> 경찰관들 사이에서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감정은 일반시민들은 믿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경찰은 "우리"와 "그들"로 구분을 지우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집단의 고립과 폐쇄성이 심해지는 것 같다.

Skolnick(1966)은 다른 직업에서도 역시 그들 나름대로 하위문화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직업과 다르게 경찰은 자신의 직업집단 내에서 사회적 정체감을 찾는 경향이 의외로 강한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였다.<sup>11)</sup> 그는 경찰직업에 내재되어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이 이러한 성향에 기여한다고 하면서 이러한 요소들 가운데는 '경찰활동상의 위협', '권위주의'가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경찰업무가 전부 위협한 것은 아니나 위협의 가능성은 항상 잠재되어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경찰활동에 있어서 위협의 불예측성 때문에 경찰은 시민에 대하여 대부분 의심을 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또 경찰은 권총, 휴대용무전기, 수갑 등 다양한 장비를 갖추고 있고, 공권력의 얼굴로서의 이미지가 완벽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이 경찰로 하여금 권위주의적인 특성을 가지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한 견해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경찰이라는 직업 자체가 천성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그러한 성격특성을 가진 지원자들이 지원한다는 견해이다. 또 하나는 경찰직에 근무하는 동안 경험하는 사회화가 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러한 성격특성을 갖도록 해준다는 주장이다.<sup>12)</sup>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성격적 특성이 어떻게 발달하게 되는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대다수 학자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찰관들은 일반시민과 현저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보이며, 자신들만의 독특한 가치체계와 행태를 공유하고 있는 직업집단이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나. 직업적 성격의 형성과정

한 개인이 직업에 적응해 가는 과정인 직업적 사회화과정은 대체로 한 개인이 입직 전에 직업을 선택하기까지 거치게 되는 기대사회화, 직업선택 후에 공식적으로 부과되는 적응과정인 공식적 사회화,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며 조직풍토에 적응해 가는 비공식적 사회화의 세 단계로 형성된다.<sup>13)</sup>

9) D. H. Bayley and E. Bittner, "Learning the Skills of Policing",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47, 1989, p. 87.

10) J. S. Kunen, "Praised, Admired, Feared and Mistrusted, Cops Are Seen Not in True Colors, But Only Blue", People Weekly, Vol. 26, 1986, pp. 127-128.

11) Skolnick, op. cit., p. 52.

12) Richard Bennett & Theodore Greenstein, "The Police Personality : A Test of the Dispositional Mode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No. 3. 1975, pp. 439-445.

13) 치안연구소, "경찰의 직업적 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96-20, 1996, pp. 17-20.

먼저, 경찰에 입직하기 전의 과정인 기대사회화는 특정업무를 맡기 전에 그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태도, 기대, 행태구조 및 가치관을 체득해 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식적 사회화란 신규경찰관 또는 기존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직업적 사회화의 도구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회화과정이다. 또 비공식적 사회화는 경찰조직 내에서의 사회화를 의미하며, 경찰현업에 배치후 사회화를 통해서 내재화되는 것이다.<sup>14)</sup>

Rokeach 등은 신입경찰관과 고참 경찰관의 가치체계를 비교하여보았을 때 경찰직업이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 전에 이미 독특한 가치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연구결과는 경찰활동의 수행과정에서 다른 직업과 차이가 나는 독특한 직업적 성격이 형성되며, 경찰학교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역할에 관한 인식을 체득하게 된다고 하였다.<sup>15)</sup>

### 3. 경찰의 직업적 성격유형

경찰은 범죄예방과 진압, 사회적 불안요소의 제거,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전문적인 치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고유의 조직특성으로 인하여 일반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 다른 독특한 성격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더욱 보수적 성향, 권위주의와 공격성, 냉소주의, 의심과 불안감, 구성원간의 유대감과 폐쇄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6)</sup>

여러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주의적 성격특성이다. 경찰관의 보수적인 성격에 관하여 Skolnick은 경찰관이 정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보수적이라고 주장하였다.<sup>17)</sup> 그 이유는 경찰업무에 내재되어있는 위험성이 경찰관으로 하여금 의심이 많아지게 하고, 이것이 자신의 안전과 신분유지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 만일 경찰관들이 자신이 집행해야만 하는 법제도에 신념을 가지지 못한다면 심각한 갈등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경찰이 되게 된다.<sup>18)</sup>

둘째, 권위주의적 성격특성이다. 경찰관의 권위주의적 성격특성은 제복을 입고, 총기와 각종장구를 휴대하고 법을 집행하는 정복경찰관들은 살아있는 정부권력의 상징이라는 것

14) 한국경찰의 직업적 인성은 권위주의적 성향, 의심, 불안감, 냉소주의, 동료와의 의존성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이 21세기 치안서비스중심의 경찰활동을 수행하는데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서울:치안연구소, 1996, p. 115참조)

15) M. Rokeach, M. G. Miller, and J. A. Snyder, "The Value Gap Between Police and Policed," *Journal of Social Issues*, No. 27, 1971, pp. 155-171.

16) Jerome H. Skolnick, *Justice Without Trial : Law Enforcement in Democracy Society*(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66), pp. 42-70 참조.

17) Jerome Skolnick, op. cit., p. 59.

18) 만약 경찰관 자신이 집행하고 있는 법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경우 입직초기에 사퇴하게 될 것이다.

이다.19) 경찰관은 정부의 권한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찰관 자신이나 시민들은 어느 때라도 경찰은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다같이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이 경찰관들에게 권위적인 성격을 체득하도록 하는 환경적인 요인이 될 뿐 아니라 시민들과 경찰관의 접촉에 있어서 양자의 관계에 대한 성격을 결정지어주는 것이다.

셋째, 냉소주의적 성격특성이다.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그들의 일상적인 업무 때문에 냉소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Westley는 “경찰관들은 자신들이 보호해야 할 시민들을 불신하도록 훈련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20) 경찰교육의 군대식교육이 경찰지원자들로 하여금 자기자신, 경찰조직, 그리고 사회전반에 대하여 급격하게 냉소적으로 변화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21)

넷째, 공격적 성격특성이다. 경찰관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공격에 대응해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은 어떤 지역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도 무전기에서 범인수배령이 하달되어 인상착의가 알려지면 곧바로 범죄자를 체포해야 한다. 이러한 경찰관의 업무에는 항상 잠재적인 폭력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은 범죄자를 체포하거나 법집행활동을 할 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게 된다.22)

다섯째, 의심이 많다는 성격특성이다. Kirkham은 경찰이 일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폭력 때문에 유능한 경찰관이 무사히 근무를 마치기 위해서는 항상 몸에 배어있는 의심이 생활의 일부처럼 되어있다고 설명한바 있다.23) 이와 같이 특성은 외부인들로부터 동료들 보호하고, “강인한”인상을 과시하게 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반면에 자신이 봉사하는 일반시민들을 불신하며 시민들이 원하는 변화에 저항하게 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배타적 성격특성이다. 경찰관의 독특한 성격적 특성 중에 하나는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며, 다른 사회구성요소들로부터 거리감을 가지려고 하고 경찰집단을 더욱 결속시키려한다는 점이다. 경찰관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려고 하는 반면에, 일반인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경찰은 자신의 직업 때문에 일반시민과의 교제와 상호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24) 이러한 배타성 혹은 동료의식의 원인에 대해서 Bittner는 위협하고 하기 싫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25)

19) Robert H. Langworthy and Lawrence F. Travis, Policing in America : A Balance of Forces(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94), p. 217.

20) William Westley, Violence and the Police: A Sociological Study of Law, Custom and Morality(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p. 49.

21) 니더호프의 연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입경찰관의 입교시에는 경찰조직과 상관에 대하여 각각 80%와 50%가 긍정적으로 대답한 반면에 두달후 수료시점에 동일한 질문에 각각 13%로 감소하였다.

22) Jerome Scolnick, op. cit., p. 47.

23) George Kirkham, "A Professor's Street Lesson" in R. Culbertson and M. Tezak,(ed), Order Under Law(Prospect Heights III, Waveland Press, Inc., 1981), p. 81.

24) Micheal Banton, The Policeman in the Community(New York : Basic Books, 1964), P. 198.

25) Egon Bittner, The Function of Police in Modern Society (Rockville, MD : National

### 4. 선행연구의 검토

경찰조직의 직업적 성격을 규명하는 논문은 많지 않은 편이다. 대부분의 연구가 경찰하위문화 중 냉소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며,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경찰조직의 하위문화를 조망하는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선행연구결과를 검토해보으로써 연구의 기본방향과 목적을 찾고자 한다. 다음 <표1>은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결과를 연구자가 재구성한 것이다.

<표1>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결과종합

연구자	연구내용	연구결과	비고
R. Bennet & T. Greensstein(1975)	신입경찰과 일반시민간의 가치관과 태도의 비교	차이없음	입직후 형성발전된 것으로 주장
Niederhoffer(1976)	경찰관의 냉소적 경향성 측정 ① 근무기간과의 관계 ② 계급간 차이 ③ 학력과의 관계	①근무기관과관계있음 ②하급자가더냉소적임 ③차이없음	①번은 R.Regoli(1978)의 연구에서 발견안됨 ②번은R.Culbertson(1987)의 연구에서 재확인 ③번은 R. Regoli(1978)의 연구에서 재확인
E. Poole & R. Regoli(1979)	냉소주의의 하위차원에 대한 요인분석	업무의 효율성, 경찰업무, 경찰사명	A.Miracle(1983)은 5개의 요인을 추출함: 시민, 경찰업무, 전문화, 경찰관행과 절차, 부서의 효율성
Terry(1989)	경찰과 다른집단 권위주의와 편견의 차이	유의한 차이가 없음	단지, 경찰이 좀더 지적이고, 정서적 안정성, 서비스지향성이 높음
조병인(1990)	수사경찰의 신념과 행동의지	검찰과 교정기관에 대하여냉소적, 공격적 성향, 권위적인 경향	교육훈련의 미흡이 원인
한상암(1996)	경찰의 인성적 특성 (사회화과정)연구	권위주의, 보수성, 의심, 불안감, 냉소주의, 공격성, 동료와의친밀감 등의 경찰의 직업적 성격 특성발견	입직전의기대사회화정도,근속기간,연령,교육훈련,출신지, 근무지역, 학력 등의 개인적 특성과 유의한 관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R. Bennet & T. Greensstein(1975)은 신입경찰의 가치관과 태도가 일반시민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경찰관의 직업적 성격특성은 근무를

Institute of Mental Health, Center for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1970), p. 63. : 또 Robert Taylor에 의하면 경찰하위문화의 특징중에 하나는 강력한 동료집단의 압력과 동료경찰관의 생각에 대한 무한한 배려이기 때문에 동료들로부터의 인정이 경찰세계에서 만큼 중요시되는 사치는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경찰관의 친밀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동료간의 친밀감은 가족의 역할을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 Stephen F. Coleman도 경찰하위문화의 특징을 강력한 응집력으로 표현되는 동료애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경찰문화를 내집단과 외집단으로 구분하여 시민들과 동료들에 대한 경찰과느이 행태를 각각 구분한다고 주장하였다

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Niederhoffer(1976)는 경찰의 냉소주의적 경향성을 측정하고자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통해서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근무연한과 냉소적 경향성은 곡선적인 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다.

하지만 Regolie(1979)의 연구에 의하면 근무연한과 냉소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sup>26)</sup>고 하여 엇갈린 연구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 Neiderhoffer는 하급자가 관리자보다 더욱 냉소적이라고 하였으나 Regolie는 경찰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경찰관들도 냉소적 경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sup>27)</sup> 그리고 학력과 냉소주의의 관계는 학력에 따른 통계적 유의 관계는 없었다. M. G. Wilt & J. D. Bannon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발견되었다.<sup>28)</sup>

이외에도 치안환경이 상이한 부서와 냉소주의의 관계를 보면, 농촌지역경찰관은 대민관계 냉소주의는 낮은 반면에 업무냉소주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erry(1989)는 상당한 양의 문헌연구를 통해서, 경찰관과 다른 직업군의 사람들간에 권위주의나 편견에 대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으며, 다만 경찰이 좀더 지적이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있으며, 서비스지향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였다.<sup>29)</sup>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관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으며, 구광모와 조병인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경찰의 직업적 성격을 규명하는 연구였으며, 한상암의 한국경찰관의 인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대표적인 연구이다. 구광모(1989)는 한국경찰은 합법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법집행기술자”의 기능을 담당하는 권위적, 공격적인 행태를 보인다고 하였다.<sup>30)</sup> 그리고 조병인은 한국의 수사경찰은 타형사사법기관(검찰과 교정기관)에 대하여 냉소적이며, 현행 수사체제에 대하여도 비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sup>31)</sup>

한편 한상암(1996)의 연구결과를 보면, 기대사회화요인은 부분적으로 경찰의 인성적 특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연령은 의심, 공격성, 배타성과 출신지역은 냉소성, 불안감, 배타성과, 생활정도는 권위주의, 냉소주의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경찰의 직장경력 중 근무부서는 냉소주의와, 재직기간은 냉소주의, 의심, 불안감, 공격성, 배타성과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었으며, 계급은 의심, 공격성, 근무지역은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었다.<sup>32)</sup> 즉 한상암의 연구에서 냉소주의, 공

26) Robert Regolie, *Police in America*(Washington D.C.: Univ. Press of America, 1977), p. 62.

27) R. Regolie & G. Culberston, P. Crank, "Career Stage and Cynicism Among Police Chiefs," *Justice Quarterly*, Vol. 7, No. 3, 1990, pp. 593-614.

28) M. G. Wilt & J. D. Bannon, "Cynicism or Realism : A Critique of Niederhoffer's Research into Police Attitud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4, 1976, p. 40.

29) W. C. Terry, "Police Stress : The Empirical Evidence",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9, 1989, p. 550.

30) 구광모, "경찰관의 관행과 행태에 관한 한·미·일비교" 서재근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89, pp. 141-178.

31) 조병인, *사법경찰의 수사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0, pp. 140-143.



격성, 배타성 등이 경찰관의 주요한 인성적 특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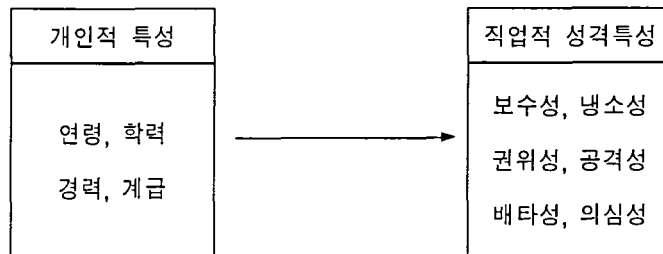
이상에서의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거시적인 측면에서 한국경찰의 성격특성에 대한 조망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경찰관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가하는 면에서는 통제집단과의 비교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신입직자를 통제 집단으로 이용하여 기존의 경력경찰관과 비교연구를 하였다. 이를 기초로 경찰관의 연령, 학력, 재직기간 등과 같은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성격특성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 Ⅲ. 연구방법

#### 1. 가설의 설정

다음 그림은 위에서 이론적 배경에서 검토한 이론과 선행연구의 결과를 기초로 본 연구의 분석의 틀을 제시한 것이다.

<그림 1> 분석의 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경찰관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근속기관 및 계급이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인 보수성, 냉소성, 권위성, 그리고 공격성과 배타성, 의심성 등 6가지의 특성에 각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하에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하나는 경찰관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를 검증하기 위한 가설이다. 또 하나는 만약 경찰관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의 연령, 학력, 근무기간, 계급이라는 개인적 특성요인

32) 한상암, “한국경찰의 인성적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6, pp. 184-196.

이 직업적 성격특성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가설이다.

가설1) 경력경찰은 신입경찰과 직업적 성격특성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가설2) 경찰의 개인적 특성은 직업적 성격특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3)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직업적 성격특성에 차이가 날 것이다.

## 2. 연구절차 및 방법

본 연구는 실증적 조사연구를 하였다. 조사대상은 현재 경찰종합학교에서 직무교육을 받고있는 경력경찰관을 연구집단으로 정하고 중앙경찰학교에서 신입순경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을 통제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2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연구자가 두 학교기관을 방문하여 설문지 취지와 표기요령을 설명한 후에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묻는 14개 문항과 개인적 특성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5개 문항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척도는 한상암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본 논문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계수가 .87로서 문항의 사용에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경력경찰이 190명이고, 신입교육생은 100명이었다. 이 중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력경찰 17명과 신입교육생 7명을 제외한 각각 173명과 93명의 설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집단인 경력경찰 173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먼저 연령을 보면 30세미만은 8명, 30대가 62명, 40대가 81명, 50대 이상이 22명이었고 학력은 고졸이하가 118명, 대졸이상이 55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근속기간은 5년 이하가 19명, 6년에서 9년이 17명, 10년에서 15년이 47명, 16년에서 19년이 30명, 20년 이상은 60명이었으며, 계급은 순경이 4.1%, 경장은 9.3%, 경사 17.2%, 경위 17.2%, 경감이상은 32.5%의 분포를 나타내어 전체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분포비율은 통계처리를 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처리방법은 SPSS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초통계와 차이검증, 그리고 회귀분석을 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 1. 신임 및 경력경찰간의 직업적 성격특성비교분석

다음 <표2>은 신입경찰과 경력경찰간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독립표본의 T검증을 통하여 비교하여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존재하는지를 알아보았다.

<표2> 직업적 성격특성의 차이검증결과

구 분	공격성	권위성	냉소성	보수성	의심성	배타성
경력경찰	4.00	2.10	3.89	3.28	3.50	3.46
신입경찰	3.59	2.04	3.30	3.15	3.01	3.34
t 값	5.15***	.57	5.34***	1.07	5.63***	1.60

\*\*\*=p<.0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T검증을 시행한 결과 경력경찰과 신입경찰집단간에 직업적 성격 특성 중 공격성, 냉소성, 의심성이 p<.001의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권위성, 보수성, 배타성은 경력경찰과 신입경찰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Skolnick(1966)과 Manning(1989)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일부 발견되었다는 점과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입직 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입직 전에 기대사회화과정으로 통해서 이미 형성된다는 Rokeach(1971)의 주장과도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은 공격성, 냉소성, 그리고 의심성이 밝혀졌다. 즉, 경찰은 범죄자나 일반시민을 잠재적 폭력자(potential assaulter)로 간주하고, 물리력을 사용하여서도 범죄자를 억압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공격적 성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 검찰, 법원, 교정기관 등 형사사법기관이나 일반시민에 대해서 냉소적인 성향을 나타내는 냉소적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시민이나 범죄자 등 타 집단 심지어 민간인 친구의 말에 대해서도 믿지 않고 의심을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 2.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성격특성의 관계

다음은 위에서 검증된 직업적 성격특성들이 경찰관 개인의 특성에 영향을 받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한 결과이다.

<표3> 회귀분석결과

독립변수	공격성		권위성		냉소성		보수성		의심성		친밀성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Beta	t
연 령	.183	1.35*	-.01	-.08	-.06	-.41	.110	.808	.081	.597	-.24	-.74
학 령	.093	.013	.026	2.85**	-.08	-.89	.120	1.32*	-.04	-.46	.013	.138
계 급	-.02	-.12	.168	1.62*	.07	.67	-.24	-2.4**	.039	.384	.029	.279
근속기간	.020	.120	-.12	-.72	.032	1.95*	.120	.730	.043	1.26*	.231	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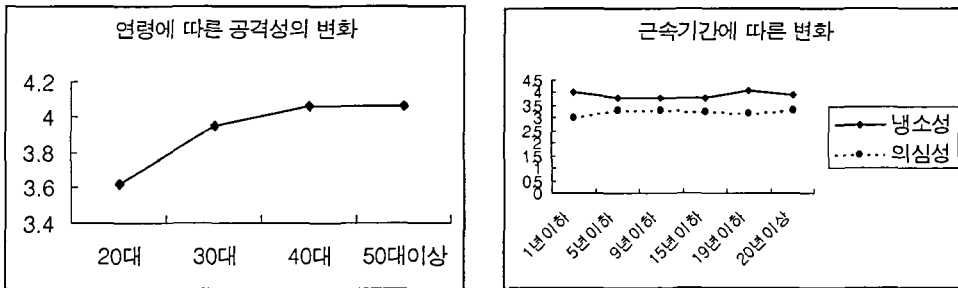
\*=p<.05 \*\*=p<.01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찰관의 개인적 특성과 직업적 성격특성의 회귀관계를 보면, 연령은 공격적 성향(t=1.35, p<.05), 학력은 권위성(t=2.85, p<.01), 보수성(t=1.32, p<.05), 계

급은 권위성( $t=1.62, p<.05$ ) 및 보수성( $t=-2.4, p<.01$ )과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근속기간은 냉소성( $t=1.95, p<.05$ ), 의심성( $t=1.26, p<.05$ ), 배타성( $t=1.39, p<.05$ )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Niederhoffer(1976)의 연구결과에서 냉소성은 근무기간과 관련이 있고 학력과는 관계가 없다는 주장과 일치하였다. 또 Terry(1998)의 연구에서 권위성은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는 주장과 달리 학력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다음 그림은 공격성, 의심성, 냉소성과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제시한 그림이다.

<그림2> 직업적 성격특성의 변화추이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령이 많은 경찰일수록 범죄자의 검거나 범죄진압을 위해서 무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한다는 인식을 가지는 직업적 성향이 강하고 법집행의 방법이나 조직내외의 변화를 싫어하는 보수적 성격이 강함을 의미한다. 경찰의 계급이 올라갈수록 권위주의적 성향과 보수성적 경향도 강하다는 것은 경찰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하는 지위에 있다는 지위요인이 권위성과 보수성적 경향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경찰의 경력을 나타내는 근속기간요인은 경찰로 하여금 냉소성과 의심성, 그리고 친밀감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냉소성은 경력 1년 이하의 초임경찰과 19년 이상 고참경찰이 높게 나타났으며, 의심성은 5년에서 9년 이하의 경찰과 20년 이상의 고참경찰의 평균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Neiderhoffer(1976)의 연구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근무기관과 냉소적 성향은 관계가 있는 것은 동일하나 그는 계급간의 냉소성에서는 하급자가 더욱 냉소적이라고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발견된 경찰의 직업적 성격 중 공격성과 냉소성, 그리고 의심성은 연령과 계급, 근속기간 요인과 유의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경찰입직의 기간이 많을수록 더욱 이러한 성향이 강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권위성과 보수성, 그리고 친밀성도 신입경찰과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학력과 계급 요인이 권위성과 보수성과 인과관계가 발견되었고, 근속기간과 친밀감도 마찬가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는 점이다.

## V. 요약 및 결론

이상의 연구에서 경찰관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이론적 배경에 관한 문헌검토와 연구가설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일부 발견되었다. 한국경찰은 공격성, 냉소성, 그리고 의심성을 직업적 성격특성임이 밝혀졌다.

둘째, 한국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요인인 공격성과 냉소성, 그리고 의심성은 연령, 계급, 그리고 근무기간요인과 인과관계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으로 검증되지 않는 권위성, 보수성, 그리고 동료 간의 친밀감도 경력경찰집단내의 개인적 특성요인에 영향을 받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1)과 2)는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한국경찰은 공격적인 성향과 냉소성, 그리고 의심성이라는 직업적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국경찰은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유신시대, 광주민주화운동을 거치면서 민생치안보다는 시국치안에 매달려있었기 때문에 치안서비스라는 경찰본래의 봉사정신에 소홀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최근의 노사분규진압과정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시위대와 경찰의 대립적 갈등구조는 더욱더 경찰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어 안타까움마저 든다.

경찰업무의 특성상 범인을 검거하고 범죄를 진압해야하기 때문에 경찰의 직업적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경찰이 좀더 시민과 가까이 하는 주민밀착형 경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모습보다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고, 이와 아울러 냉소적이기보다는 친근한 경찰의 이미지가 필요하며, 시민을 의심하기보다는 상호가 신뢰하는 모습을 보일 때 경찰본연의 임무수행에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위의 연구에서 발견된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부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어떤 조직이던 조직 나름대로의 부문화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이러한 부문화적 특성들이 조직의 생산성과 효율성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모름지기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을 치안서비스와 범죄진압이라는 본연의 임무수행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에서 경찰교육훈련프로그램의 보완과 직무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성과는 경찰의 직업적 성격특성이 일부 발견되었고, 이 특성이 경찰의 개인적 요인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검증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성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연구의 표본이 전국적인 경찰집단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직업적 성격특성으로 발견되지 않은 권위성, 보수성, 그리고 친밀성의 세부적인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운 점이다. 차후연구에서 표본의 대표성과 세밀한 설문구성작업을 통해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 參 考 文 獻

### ▣ 국내문헌

- 김현택외, 『심리학』, 서울:학지사, 1998.
- 구광모, “경찰관의 관행과 행태에 관한 한·미·일비교” 서재근박사화갑기념논문집, 1989.
- 조병인, “사법경찰의 수사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0.
- 치안연구소, “경찰의 직업적 사회화과정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96-20, 1996.
- 한상암, “한국경찰관의 인성적 특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1996.
- 홍숙기 역, 『성격심리학』, 서울: 박영사, 1990.
- D. H. Bayley and E. Bittner, “Learning the Skills of Policing”, *Law and Contemporary Problems*, 47, 1989.
- Egon Bittner, *The Function of Police in Modern Society*, Rockville, MD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Center for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1970.
- George Kirkham, “A Professor’s Street Lesson” in R. Culbertson and M. Tezak,(ed), *Order Under Law*, Prospect Heights III, Waveland Press, Inc., 1981.
- J. S. Kunen, “Praised, Admired, Feared and Mistrusted, Cops Are Seen Not in True Colors, But Only Blue”, *People Weekly*, Vol. 26, 1986.
- Jerome H. Skolnick, *Justice Without Trial : Law Enforcement in Democracy Society*, New York : John Wiley & Sons, Inc., 1966.
- L. A. Pervin,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b, 1993.
- M. G. Wilt & J. D. Bannon, “Cynicism or Realism : A Critique of Niederhoffer’s Research into Police Attitudes,”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4. 1976.
- M. Rokeach, M. G. Miller, and J. A. Snyder, “The Value Gap Between Police and Policed,” *Journal of Social Issues*, No. 27, 1971.
- Micheal Banton, *The Policeman in the Community*, New York : Basic Books, 1964.
- P. K. Manning, “The Social Control of Police Work”, In Holdway, S. (ed), *British Police*, London : Edward Arnold, 1979.
- P. K. Manning, *Occupational Culture*, New York:Garland, 1989.
- R. Regolie & G. Culberston, P. Crank, “Career Stage and Cynicism Among Police Chiefs,” *Justice Quarterly*, Vol. 7, No. 3, 1990.
- R. Regolie, *Police in America*, Washington D.C.: Univ. Press of America, 1977.

Richard Bennett & Theodore Greenstein, "The Police Personality : A Test of the Predispositional Model," *Journal of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No. 3. 1975.

Robert H. Langworthy and Lawrence F. Travis, *Policing in America : A Balance of Forces*, New York : Macmillan Publishing Co., 1994.

W. C. Terry, "Police Stress : The Empirical Evidence", *Police Science and Administration*, Vol. 9, 1989.

W. Westley, *Violence and the Police*, Cambridge, MA:MIT, 1970.

William Westley, *Violence and the Police: A Sociological Study of Law, Custom and Morality*, Cambridge, Mass.: MIT Press, 1970.

## ABSTRACT

### The Study on Work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of Police Officer in Korea

by Jo Sung Ho, Kim Sang Kyun

This research is aimed to clarify police officer's working personality characteristics. The sample was divide in two sub-groups according to research group of career police officer and comparative group of novice police officer.

The followings are list of significant tendencies.

First, career police officer have aggression, cynicisms, suspicion contrast to novice police officer.

Second, working personalities of aggression, cynicisms, suspicion is relationship between age, rank, service term.

Findings of this study is that working personality of police officer in korea was made survey empirically, and identified change process of police officer's working personality.



## 설문지

본 설문지는 경찰공무원의 직업적 성격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조직문화와 직업특성을 파악하여 경찰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는데 있습니다. 설문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므로 귀하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장됨을 약속드리며, 솔직하게 응답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자 올림(연락처 : 019-409-5590)

※ 다음은 경찰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내용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를 해주시면 됩니다.

문항	문항의 내용	전혀그렇지않다	그렇지않다	그저그렇다	약간그렇다	정말그렇다
1	현실에 맞지않는 제도도 너무 자주 바꾸면 안된다.	1	2	3	4	5
2	법과 제도는 어떠한 경우라도 지켜야 한다.	1	2	3	4	5
3	경찰관은 지역주민과 개인적 친분관계를 유지해서는 안된다.	1	2	3	4	5
4	경찰은 시민의 사소한 범위반도 눈감아줘서는 안된다.	1	2	3	4	5
5	시민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경찰에 비협조적이다.	1	2	3	4	5
6	언론은 경찰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보도한다.	1	2	3	4	5
7	시민들은 조금만 경계를 소홀히 하면 나쁜 짓을 한다.	1	2	3	4	5
8	시민들은 준법정신이 희박하다.	1	2	3	4	5
9	경찰관은 시민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	1	2	3	4	5
10	시민들은 범죄자채포에 비협조적이다.	1	2	3	4	5
11	범죄자 검거시 필요하면 물리력의 행사가 경찰에게 허용되어야한다.	1	2	3	4	5
12	경찰은 비협조적인 시민에게 화를 내는 경향이 있다.	1	2	3	4	5
13	나는 쉬는 날에도 동료들과 어울린다.	1	2	3	4	5
14	경찰관은 일반시민보다 정직하다.	1	2	3	4	5
15	시민들은 경찰을 신뢰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나는 언론매체의 경찰보도에 불만이 많다	1	2	3	4	5
17	경찰의 승진제도는 적절하지 못하다.	1	2	3	4	5

문항	문항의 내용	전혀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저그렇다	약간그렇다	정말그렇다
18	경찰의 복리후생정책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1	2	3	4	5
19	경찰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	1	2	3	4	5
20	경찰의 정책이 일관적이지 못하다.	1	2	3	4	5
21	나는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편이다.	1	2	3	4	5
22	경찰과 일반시민간에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1	2	3	4	5
23	업무상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다.	1	2	3	4	5
24	경찰은 갑작스런 비상근무가 많다.	1	2	3	4	5
25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1	2	3	4	5
26	나는 지금의 일을 잘해낼 수 있는 능력이 모자란다는 생각을 가끔한다.	1	2	3	4	5
27	나는 나 자신의 안전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낀다.	1	2	3	4	5
28	나는 경찰직이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5
29	나는 내가 사는 동네에서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다.	1	2	3	4	5
30	다른 형사사법기관과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	2	3	4	5
31	나는 항상 머리가 아프거나 뒷목이 당기는 느낌이 있다.	1	2	3	4	5
32	나는 업무에 흥미가 없다.	1	2	3	4	5
33	나는 나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	1	2	3	4	5
34	나는 혈압이 높은 편이다.	1	2	3	4	5
35	나는 항상 피곤함을 잘 느낀다.	1	2	3	4	5

■ 다음은 귀하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계급은

- ① 순경 ② 경장 ③ 경사 ④ 경위 ⑤ 경감이상

2. 귀하의 경찰경력은?

- ① 1년미만 ② 1년-5년이하 ③ 6년-9년 ④ 10년-15년 ⑤ 16년-19년 ⑥ 20년이상

3. 귀하의 학력은? ① 고졸이하 ② 대졸 ③ 대학원졸이상

4.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5. 귀하의 연령은? ① 29세이하 ② 30세-39세이하 ③ 40세-49세이하 ④ 50세이상

6. 귀하의 현재 근무부서는? ( )

※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